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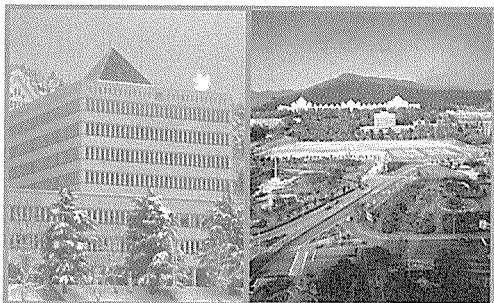
도서관탐방

지식탐구의 열기와 클래식 선율의 낭만이 공존하는 공간 .  
호남사학의 명문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다녀와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광주를 향하던 고속버스는 1시간 30분 가량을 달린 후 탄천휴게소에 우리를 잠시 내려주었다. 3월이 시작된지도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뒤늦게 날리는 눈발을 의아해하며 다시 버스에 오를 때 만해도 이 날씨가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엄청난 재난의 전초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우리가 이틀만 늦게 도서관을 찾아갔어도 꿈쩍없이 고속도로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2시간 정도 더 달려 도착한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탄 택시는 조선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 현관 바로 앞에 우리를 내려주었다. 53만 여 평에 걸쳐 자리잡은 캠퍼스 전체를 조망한 후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만약 우리가 학교 정문에서부터 내려 걸어왔더라면 넓디넓은 교정을 헤매다가 도서관 탐방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도 전에 지쳐버릴 뻔했다.

빛고를 광주에는 광주교육대, 전남대 등 국립대학 2곳, 조선대, 호남대 등 사립대 7곳 광주보건대, 조선간호대 등 전문대 7곳을 합하여 총 16곳의 대학이 있으며, 이 중 1946년에 개교한 조선대학교는 58년의 유서 깊은 역사와 광주중심에 위치한 드넓은 캠퍼스(사진)를 자랑한다.



(좌)도서관 전경, 우)조선대 전경

기네스북에도 올려져 있다는 조선대학교의 상징건물 본관 앞 5천여 평의 터에 웅장한 자태로 자리잡은 도서관을 들어서니, 아니!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몽땅 여기 모여있나 싶을 정도로 1층 로비가 들쭉날쭉하다. 이제 막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뿔어내는 학습열기가 그득하다.



〈허정 관장〉

1950년부터 50년 넘게 사용했던 구도서관 건물과 작별을 하고 최첨단 디지털 건물로 신축 개관한 때가 작년 3월 18일이었다. 7층으로 지어진 도서관

에는 3,000여 석의 열람석, 95만여 권의 장서, 국내외학술지 8천여 종, 전자저널 6천여 종이 갖추어져 있으며, 허정(許政) 관장(사진) 이하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처리과 학술정보봉사과 등 3개과 35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도서관 둘러보기에 앞서 찾아 뵈 허정 관장께서는 우리 “도서관문화” 편집팀을 크게 환영하시며 도서관 운영방침의 키워드는 첫째도 자료 둘째도 자료라고 누누이 강조하셨다.

신축 도서관이 들어서기 전 5천여 평의 공터는 학교 설립 당시 경비행기 승하차장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비행기를 운행하여 서울의 좋은 교수진들을 지방의 캠퍼스로 초빙하고자 했던 설립자의 정신을 새삼 뒤돌아 볼 때, 풍부한 자료와 최첨단 시설로 꾸며진 도서관이 학술자료 중심으로 100% 활용되지 못하고, 시험 공부 등을 위한 공부방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관장을 비롯한 도서관 직원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도서

관은 작년에 신축이관하면서 의대 공대 등에 있던 3개 분관을 통합하였고, 올 초에는 도서관에서 일반열람실 공간을 줄이는 대신 각 단과대학별로 개인학습실을 확보해주겠다는 협상을 총학생회측과 진행중이라고 한다.

학술정보보사과 고재복 과장의 안내로 둘러본 도서관은 자연채광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 건물 구조와 주황색 계열로 통일한 각종 안내표지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블라인드 대신 창마다 드리워져 있는 아이보리색 로만셰이드형 커튼 덕분에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안내자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는 8천 평으로 구상했던 도서관이 IMF 금융위기와 설계 변경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으며, 원래 계획대로 그리고 설계 초반부터 사서들도 함께 참여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정도서제도', '실배(室配)서비스', '영상세미나실 연중 개방' 등 도서관 자료/시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시킬 것인가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도서관 식구들의 노력은 매주 화요일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영상세미나실(7층), 교수 및 대학원생 자료열람을 위한 개인열람실(4층), 퇴임한 교수들을 위한 공간인 명예교수실(4층), 위성방송수신실까지 갖추어진 멀티미디어정보센터(3층), 대출/반납/이용증 발급 등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일체의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서비스센터(1층), 교내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정보지원실(1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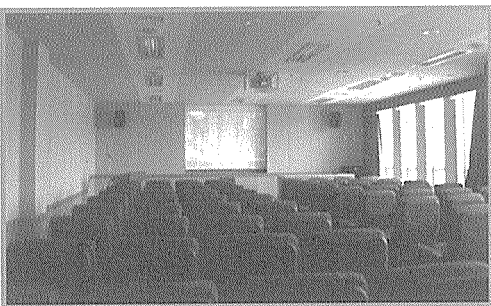


〈3층 멀티미디어정보센터 내의 성암인터넷실. 戒岩 廉洪燮 광주방송 회장이 후학 양성을 위해 기증한 3억여원으로 마련〉

의 활발한 이용률로 결실을 맺고 있었다.

도서관이 조선대학교 최적의 장소에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재탄생한 지 이제 막 1년 정도가 지났다. 건물 하자나 운영시스템상의 미비점들을 손보는 일은 도서관 신축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들었던 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건물 규모나 최첨단 전산 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도서관이 세운 기록들은 언젠가 후발주자에 의해 갱신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관장 이하 도서관직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중앙도서관만의 특화된 장서정책과 이용자서비스가 개발되어, 도서관이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호남 사학의 명문 조선대학교 재학생 2만5천명, 더 나아가 140만 빛고를 광주시민의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도서관문화” 편집팀은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㉞

[글 : 박경아, 사진 : 심호정]



〈7층 영상세미나실. 80석 규모로 환상적인 음향시설이 거의 서울 COEX 메가박스 수준. 매일 12시부터 1시간 가량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



〈1층 장애인정보지원실. 시·청각 장애자의 학습지원을 위한 자료실로 이미지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시민들에게도 개방되고 있다.〉